

차 트렁크에 실린 앵무새 200마리



▲ 트렁크에 실린 앵무새들. 사진=유튜브(Telenueve) 캡처

아르헨티나 경찰이 200마리가 넘는 앵무새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던 남자들을 적발했다.

10일 아르헨티나 경찰은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지방의 한 도로에서 통상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이날 정오쯤 경찰은 남자 2명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동차 관련 서류와 남성들의 신원은 확실했지만 두 남자는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경찰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라고 했지만 남자들은 섣불리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차 라디오를 끌 것을 요구하자 남자들은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다. 그러자 트렁크에서 누군가가 재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경찰은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다. 잠시 주저하던 두 남자가 체념한 듯 트렁크를 열자 그곳엔 200마리가 넘는, 일명 '말하는' 앵무새인 '아마조나 아에스티바' 앵무새가 가득했다. 남자들은 앵무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었던 것이다.

앵무새는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지방 산타페로 옮겨지는 중이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운반책이라며 밀매 과정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남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구출한 앵무새 216마리를 동물보호국에 넘겼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마조나 아에스티바' 앵무새는 암시장에서 한 마리당 최소한 6만 페소(약 700달러)에 거래된다.

14 ~ 22km 눈길 걸어서 출근한 의료진들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 스페인에서 수십km의 눈길을 걸어 출근한 의료진들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라울 알코호르는 지난 9일 폭설로 차량 통행이 막히자 무려 14km의 눈길을 걸어 출근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0cm 깊이의 눈과 쓰러진 나무들로 길이 매우 혼잡했다. 2시간 넘게 걸어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서 "퇴근도 하지 못한 채 24시간 이상 일하며 교대 근무자를 기다리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폭설을 뚫고 22km를 걸어서 출근한 2명의 간호사도 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컴컴한 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을 뚫고 병원에 출근했다.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로 산체스 박사 또한 도로에 폭설이 내려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자 의료 대란을 우려한 끝에 17km를 걸어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보건부장관은 이들의 사연을 전하며 "의료 종사자들의 이러한 헌신의 좋은 예"



▲ 눈길을 걸어 출근하고 있는 라울. 사진=트위터(Dely) 캡처

라고 격려했다.

스페인에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스페인 의료진 수는 수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5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었다.

통금 피하려고 남성 몸에 개줄 묶어 산책한 여성



▲ 남성 몸에 개줄을 메고 산책한 여성. 사진=유튜브(chienchien) 캡처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성 몸에 개줄을 묶어 산책하던 여성의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캐나다 퀘벡주는 코로나19 급증으로 지난 9일부터 한 달 동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부과했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개와 산책

하는 것은 허용했다.

그런데 통금이 시작된 9일 밤 퀘벡주 서브룩에 사는 한 여성이 남성의 몸에 개줄을 메고 산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황당하게도 "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여성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성은 결국 1,500캐나다달러(약 12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받았지만, 자신에 관한 자유의 제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매일 밤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도시에서는 또 술에 취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그는 "야간 통행금지 동안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퀘벡주 전역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사례는 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